

“청소년의 노동 지켜주세요”

광주지역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1박 2일간의 행복한 노동 인권 캠프 수어



광주교육청이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관련 감수성 함양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관내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캠프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청소년노동

인권캠프에서는 노동인권 골든벨, 노동마블 게임, 노동영화 감상, 아르바이트 경험 나누기 등을 통해 노동인권 관련 감수성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또한 '우리 목소리가 들리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피켓을 제작한 후 상무지구 주변에서 캠페인을 실시해 노동인권 관련

학생들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광주교육청은 청소년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800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통해 학급별로 강사를 파견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및 시내일원 등에서 노동인권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홍보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교과서가 개발·인정되어 2020년부터 특성학교 17개 학급에서 '노동인권' 정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오경미 과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운영 및 교육활동을 전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학부모 자치 학부모교육 '호응' 커

전남교육청이 추진 방식을 개선해 학부모 스스로 주관해 추진하는 학부모교육이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리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나주 소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7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소프트(Daumsoft) 송길영 부사장을 초빙해 '2019년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 두 번째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지난달 18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첫 번째 강연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홍보하고 사회를 보았으며, 나주 학부모회 네트워크 학부모의 지원봉사로 진행됐다.

송길영 부사장은 해시태그 유어 라이프(Hashtag your Life)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변

화하는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식전 공연은 나주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 재능기부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에 재능기부중인 학부모 구연동화, 샌드아트, 빛가람챔버오케스트라가 재능기부를 해줬다.

사회를 봤던 전남학부모회 네트워크 김선유 부회장은 "애초 의도대로 그동안 학부모교육에서 소외됐던 직장인 학부모, 특히 아버지 학부모가 32명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교 학부모회나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교직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치기구로서 자율성을 발휘해 우리가 받을 교육을 우리가 기획하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석용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능숙한 진행과 높은 수준의 인문학 강의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전남의 학부모 수준이 꽤 높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만족도도 높고 더 책임감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학부모가 자치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인문학 강좌 3강은 오는 9일 오후 7시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메타인지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의 '메타인지를 이해하면 학습과 지혜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진행은 전남 학부모회 네트워크 조동부가 주관하며 식전 공연은 해남 학부모회 네트워크가 재능기부한다.

허성은 기자

중2 남학생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나주교육청, '2차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캠프' 실시

나주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지리산 일원에서 관내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2차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단계에 있거나 잦은 마찰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스스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캠프와 달리 이번 캠프는 학부모의 응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주경찰서 경찰관들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의 지지 속에서 학생들이 과제에 도전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희망밭', 나와 가족을 돌아보는 '돌아봄', 자신을 성찰하고 함께 다짐하는 '둘러봄'으로 이름 지어 구성했다.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정승길 계장은 "각 기관에서 청소년들

을 위해 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경찰서, 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청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함께 준비하는 캠프는 없었던 것 같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언젠가 이 푸근한 마음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올곧게 성장해 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길 교육장은 "아이들의 성장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한다. 모두 한결같이 비슷한 시기에 훌쩍 커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혹여 그 불씨가 꺼져버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흥 마을학교, 전남도청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 모색

고흥지원청, 고흥마을학교 성과나눔 워크숍 운영

고흥교육청이 11월 30일 대회의실에서 9개 마을학교 대표자 및 마을활동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고흥 마을학교 성과나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마을학교별 2019년 교육활동 성찰을 통한 2020년 계획 수립과 '전남도청 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문병교 전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해 마을공동체 가치와 철학, 다양한 운영 사례를 들었다. 또 전남도청 '2020.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마을학교) 사업과 도청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열린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고,

도청 공모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2부에서는 최병호 장학사 진행으로 마을학교별로 모둠을 구성해 퍼실리테이션 원탁토론이 이어졌다. 여는 마당으로 초상화 그리기와 함께 웃음으로 서로를 소개하고, 마을학교별 지향기와 비전, 교육목표를 함께 세웠다. 또한, 그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해 서로 토론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광주창의융합교육원, 겨울방학 영어 원격화상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원어민 영어 원격화상수업'의 형식으로 실시되며, 초5~초6 학생을 대상으로 1주에 70명씩 2주를 운영하여 총 140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원어민교사와 매일 20분씩 주5회 일대일 수업을 진행한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주 동안 2019학년도 겨울방학 원어민원격화상 영어 프

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수업참여 우선 기회 및 헤드셋과 웹캠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최숙 원장은 "함께 배우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원어민 원격화상 수업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고 외국어학습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담당 원어민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

목포교육지원청, 교원 공간혁신 역량강화 연수

목포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목포와 장성에서 희망하는 유·초·중 교감 및 교사 40여 명을 대상으로 '교원 공간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역량강화 연수는 광주 지역 초·중 공간 혁신학교 및 장성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고 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토론·실습형 강의로 꾸렸다.

연수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봤다"며 "내년에는 복도나 계단에 학습과 놀이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간주권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간을 스스로 찾고 문제의식을

가지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적, 민주적, 자율적 역량이 신장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며 "건축 중심이 아닌 의미 있는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공간 재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학교구성원 모두에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